

---

**2023년 제6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7. 27.(목) 13:50 ~ 15:56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1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7개소 9작품(조각 8, 회화 1 / 신규 7, 재심의 2)

## □ 심의결과

- 9작품 중 가결 7작품(원안 1, 조건부 5, 권고 2), 부결 2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품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남동구 만수동 889	조각	휴(休)		○		조건부, 권고
2	2	계양구 효성동 152-1번지 외	조각	Cattle		○		권고
3	3	미추홀구 주안동 1344-1 일원	조각	Geometric Memorial		○		조건부
4	4	서구 검단지구 AA13-1BL	조각	물결속으로		○		조건부
5	5	서구 검단지구 AA13-2BL	조각	화음(花音) -꽃의 왈츠		○		
	6		조각	인피니티 트윈타워		○		조건부
6	7	운서동 3084	조각	패밀리 러브 인 플라이트 (Family Love in Flight)		○		조건부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품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7	8	청라동 157-11	조각	FOREST			○	
	9		회화	A vase was set on the desk			○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6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인원은 총 11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7개소 9작품이며, 조각 8작품, 회화 1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7작품, 재심의를 2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 내용,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 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9건입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6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5차 작품 회의에서는 5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순서는 신규 안전 먼저하고 재심 안전은

그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작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휴>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휴>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애가 어디 벽면 앞에 설치가 돼 있거나 하면은 조금 평면적인 게 괜찮을 텐데 지금 설치가 되는 위치를 보면 통로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면을 다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인 거에 비해서 너무 평면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바닥 판이 조금 더 축소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을 경우에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닥판의 축소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예, 그 위치를 어떻게 뭐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혹시 채점을 하면서 참고, 권고사항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네, ○○○ 위원님.

○○○ 어, 방금 그 ○○○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작품 자체가 너무 평면적이네요. 그리고 조형적으로 너무 단조롭고 또 제목을 보니까 새싹을 모티브로 했다고 그러는데 주제하고 그 작품 내용하고 잘,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또 다른 의견? 예.

○○○ 예, 저도 그 동의합니다.

○○○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네, 저도 세 분 의견에 동의하고요. 바닥이 지금 너무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단도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 이게 지금 그 동선이 빈번한 장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작품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건축적으로 이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잘 지금...
- 예, 대행사나 담당자가 이거 위치를 어디에 다른 데 변경할 수 있느냐 여쭙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 저기 들어오시라고 해도 되죠? 잠시만.
- 예, 뭐 대행사나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자 예, 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견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예, 좋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작품하고 그다음에 나올 작품이 조형물 작품처럼 너무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위원장 예, 예.
-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무슨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비용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작품이 그 이상의 설치라든지, 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 이게 6,900만 원인데 그 작가 입장에서 작업비 빼고 나면 뭐 거의 비용이 가져가는 액수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 예, 그래서 아니,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는데 이 바닥을 지금 높이를 올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치 선정은 건축주가 알아서 했지 않을까, 앉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 저도 위원님에 동의를 하는데요. 솔직히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의 작품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위치 같은 부분은 작가가 선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의에서 어떤 조건부

로가든 뭐로 갔을 때 그런 관계자나 아니면 건축 쪽에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밖에 안 된다는 어떤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그게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심의를 통과해야 준공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장소만 적절히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그렇죠. 그거는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예, 예. 작가와 협의를 하겠죠.

○○○ 저 한 말씀만 잠깐 드리자면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가격과 그 모든 걸 보니까 좀 약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저 밑에 바닥 판은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조금 덩어리가, 높이가 좀 높아져서 바닥이라도 든든하면 그 위에 재가 좀 날썬해도 그냥 받쳐질 것 같고 이렇게 받을 걸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몸체를 좀 아, 바닥재를 조금 높이는 게 좋은 생각 같으세요.

○○○ 좌대를 높이는 건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죠.

○○○ 지금 높이가 딱 발에 걸리기 좋은 높이라서 그래요.

○○○ 맞아요, 예.

○○○ 예, 그럼 몇 센티로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예.

○○○ 차라리 약간 의자 정도 높이를 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걸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 예, 그거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거를 좀 점수를 주면서, 채점을 하면서 천장이 있어서.

○○○ 천장이 지금 보니까 건물 바깥의 외부이긴 하지만 천장에 있는 어떤 통로 같이 보이는데 이게 단이 그렇게 앉을 정도로 올라간다면

○○○ 높이가?



- 이 작품도 같이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작품을 줄여주든지. 근데 지금...
- 이 판이 150밖에 안 되거든요.
- 근데 애를 한 450으로 하면 충분히 의자 높이가 돼요.
- 아니, 그 의자 높이가 되지만 그 위에 작품이 또 올라가잖아요.
- 그렇죠.
- 지금 작품이 그것도 2m 40cm...
- 그러니까 30cm밖에, 30cm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정도는 필로티에서  
될 것 같은데요.
- 근데 이게 천장에 있으니까 30cm라도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 아예 물어버리면 어떨까요?
- 아예 없애는 게 좋아요.
- 예, 물어버리면.
- 매립을, 그럼 좌대를 매립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 예, 예. 매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도
- 키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 키 키우면 경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지금 판재를 붙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러 부서뜨리지 않  
겠지만 뭔가가 약해 보여요. 판재를 붙여서. 물론 가격이 너무 저렴하  
니까 판재를 붙여갖고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않고. 그런데 이  
게 물어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아니...
- 이게 지금 돌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  
니다, 사실.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단일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다 앵커 심고, 에폭시로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해갖고 경

기도에서 사고 난 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판재만 붙여서  
그거는 30cm 정도를 더 올리는 걸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

○○○

올리든가 아니면 뭐.

○○○

근데 애가 지금 배치도랑 조정 계획도랑 이거 위치가 2개가 다르게 표  
현이 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위치를 조금만 앞으로 빼서 필로티  
를 벗어나서 하면 사실 높아지는 거는 걸리는 게 없거든요.

○○○

그러니까 그게 위치 변경이 되니까

○○○

예, 위치 변경을 하고 단을 높이는 게 괜찮은데요.

○○○

회사에서 안 나오셨나보죠?

사회자

예.

○○○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물어도 돼요.

○○○

문어도 돼요?

○○○

예, 예. 이 지금 좌대까지 같이 묻어서 수평을 만들면 이 상태로 안전  
성 있게 했을 거 아니야, 앵커도 박고 다.

○○○

그럼요.

○○○

그 상태로 해서...

○○○

폭을 좀 더 두껍게 해주든가, 약간.

○○○

어떤 거를, 작품 폭?

○○○

작품 폭을.

○○○

아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

아니, 돌판 자체를 붙이는 걸로는 그렇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

사실상 조형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옆에서

○○○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 상태 그대로 앵커 심거나 아니면

○○○

그리고 작가한테 이거 묻히든지, 30cm 올리든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  
일 안전성 있는 부분으로 선택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작가 역량

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예, 그러면... 그래도 여러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압축시켜가지고 정리해서, 정리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대를 높이는 거, 매립하는 거, 그다음에 위치를 조정하는 거, 이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좌대를 조정하면 위치까지 뭐 밖으로 뺄 필요는 없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좀 통일을 해서

○○○ 그리고 좌대의 높이를 조금 그거는 본인 작가가 원하는 만큼 어쨌든 조금 높이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을 하든지, 좌대에 대한 안전성을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채점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따가 또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될 경우 좀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채점을 하시고 우측 책상에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채점 중 )

## 2. 계양구 효성동 152-1번지 외

### 2) <Cattle>

위원장 자, 다음은 이번 <Cattle>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번 <Cattle>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는 작품을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그 가격을 한번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3억인지, 3천인지.

- 위원장 3천이 맞습니다.
- 아니, 그리고 워낙 그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 예, 면으로 돼 있어서
- 예, 간단한.
- 이 작품의 모양을 볼 때 주변에 너무 혼하고 막 저기 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이랬는데 가격을 보고는 이해가 나름대로 되네요. 어, 이게...
- 예, 이게 저 시청 저쪽, 앞쪽에 가도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다 보니까 옆에 공원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 하트.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사진 찍는 장소로 할 때 그럴 때 보면 하트 이런 걸 해놓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가격 자체가 놀랐네요, 3천만 원 갖고 이걸 만들 수 있다니.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뭐 소의 느낌을 좀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네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고요.
- 저는 이거 규격을 봤을 때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높이가 꼬리 쪽에 1,800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1.8m. 그리고 앞쪽은 1,770인데 이러면 성인들은 확 밀렸을 때 눈을 찔리거나 혹은 어린이들은 충분히 막 신나서 매달리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여서, 높이여서 애네들을 조금 어떻게 더 높게 달거나 뭔가 변경을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진짜 뭐 충분히 매달릴 수 있는 튼튼한 강도를 확인을 한다든가 뭔가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천만 원 가지고 무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그래도 또 공공미술로서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게 좌대가 뻗 길이...

○○○ 아, 좌대를 뺀 높이가 180이면 그렇게 크게 낮은 건 아닐 것 같고요.

○○○ 그리고 요 사진 상으로 보면 좌대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좌대가 꽤 높이가 있나 봐요.

○○○ 2m 넘는데요? 그 좌대까지 하면 2m 넘어요.

○○○ 제가 이걸 채점하면서 보니까 저 인물들을 좀, 앉아 있는 인물을 작게 표현을 했습니다.

○○○ 투시도 상으로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180인데 사람 앉은 키가

○○○ 가격 대비, 적당한 작품이라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의견 말씀하시고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좌대를 한번 물어보죠.

사회자 아, 여기 관계자는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좌대.

사회자 예, 그럼 관계자를 들어와서 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어서 오세요.

관계자 안녕하세요.

○○○ 저희가 봤을 때 높이가 180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앞은 부분에 어린 애들이 매달린다는지, 성인이 매달린다는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작으니까. 그래서 좌대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지금의 좌대의 높이가 3D 사진 상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3D가.

관계자 좌대 높이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한 40cm 정도.

○○○ 음, 높네요.

관계자 그러면 총 높이가, 높이가 220...

○○○ 220 나오니까 문제없을 것 같아요.

○○○ 그래요?  
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권고사항이요? 없으면 나가셔도 되죠?  
관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채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 점 중 )

### 3. 미추홀구 주안동 1344-1 일원

#### 3) <Geometric Memorial>

위원장 네, 다음으로 3번 <Geometric Memorial>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3번 <Geometric Memorial>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작가 침투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고요. 아니, 뭐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컬러에서 너무 밸런스가 안 맞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 그리고 상체하고 하체가 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변화 좀 줬으면. 뭐 상체가 한 70% 나오고, 하체가 30% 나온다는지, 그런 변화라든지, 색깔에 대한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난해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뭐 작가가 이제 컬러링을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침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눈에 좀 거슬리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어떠신지.

○○○ 오히려 좀, 좀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 들어서 컬러는 뭐 나름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 아, 위에 그 이분이 그 조형물에 패턴이 너무 그 면적 자체가 아까 ○○○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그리고 컬러풀한 거는 건물 자체가 무채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컬러 들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한 거였습니다.

○○○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채도들이 너무 세니까 그 채도가 센 거에 비해서, 이게 채도가 센 것끼리 이렇게 같이 부딪히기 보다는 3대7 정도 균형을 좀 맞춰준다든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위에 거를 갖다가 지금 더 넣어 준다든지 이렇게 좀 변화만 줘도 좀 컬러가 세도 그렇게 좀 거부반응이 지금 안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거부반응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 그렇죠. 좌대 형태하고, 위의 그 조형물, 그 위의 형상하고 거의 반반이니까

○○○ 예, 너무 반반으로 가니까.

○○○ 예, 비례 자체가 조금 약간

○○○ 그러다 보니까 컬러풀하고 이제 채도 자체가

○○○ 그런데서 좀 변화를 주는 거는 어떤가 생각합니다.

○○○ 권고사항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위원장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개인적으로 ○○○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척 피로도를 주는 색상일 겁니다, 막상 설치가 된다면.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서울시

예전에 이렇게 경험을 보면 조건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던 이유가 ‘작품을 색깔을 이렇게 바꿔다오. 좀 비율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작가에게 작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간섭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다 동종업계니까 되도록이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 그 상태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이거는 일종의 공공미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애호가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존재라고 저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어떤 발표작과는 약간 달리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예.

○○○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게 있다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컬러적인 조화도 그렇고, 통일성 면에서도 그렇고, 조화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서 다른 작품들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면 조형성이나 여러 가지 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디자인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걸 설치하는 게 아파트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 역시 예술 작품을 보고 판단하고 또 좋아하고 그러는 건 전혀 개인적인 취미 판단, 미학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는 주로 경관심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패턴이나 색상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열띤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이걸로 재심의를 몇 번을 할 정도로 사실 아파트 자체의 컬러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건데 그런 조형물이 사실 집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약간 여기에 그래도 조화가 되는 색상인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색상 값이 사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출력물이랑 이런 화면이랑 실제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 그렇죠, 예.

○○○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색상으로 잘 해달라는 조건을 달면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 그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아까 ○○○ 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셨지만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좀 주면 그 작가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권고, 조건부로 하면?

○○○ 조건부로 하면, 조건부로 하면 받아들여야죠. 아니면 설치를 못하니까.

○○○ 그러니까 이제 권고로 할 건지, 조건으로 할 건지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저, 저 작품이 이제 제가 생각해도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은 그런 성향의, 성격의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파트에 설치됐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써주시고, 또 점수를 줘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지만. 또 그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설치되기로 가결이 됐다고 치면 권고나 제안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 사항을 써달라는 겁니다. 예, 채점이 끝나셨으면 오른쪽 책상에 놔두시고요.

( 채점 중 )

#### 4. 서구 점단지구 AA13-1BL

##### 4) <물결속으로>

- 위원장        다음으로 4번 <물결속으로>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4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 이건 공모 작품이고 굉장히 제한된 경쟁 속에서 뚫고 올라온 그런 작품이라는 말씀이죠?
- 사회자        예, 예.
- 위원장        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공모로 선정된 작품은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락을 결정 짓는 자리가 아닌 건가요?
- 사회자        일단 저희한테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냥 심의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가점에 대한 부분, 10점을 추가로 더 가점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 이거를 110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자        예, 그렇습니다.
- 하지만 부결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 사회자        아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할 수 있습니다, 예.
- 부결되면
-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은. 그래서 지금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꼬리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틀어지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동적인 요소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고기도 좀 하나 정도는 작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세로로 된 게 물결 같거든요. 물결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저것도 너무 둔탁하지 않나 또는 더 둔탁하게 해가지고 물에서 고기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그 심의서류 이렇게 보면서 이 작품, 제일 많이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 예, 저도 뭐 그 심의서류 채점을 할 때 조금 작품이 역동적이지 못하다면서 좀 비판을 좀 했었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결 속에 그 밑에 있는 땡글땡글한,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바다 생물을 표현한 건가요? 뭐 이틀테면 뭐 조개라든가, 뭐 그런 건가.

○○○ 구예요, 구, 그냥.

○○○ 아, 물고기 크기가 똑같은 건 맞습니까? 하늘에서 본 거를 보면

○○○ 하나는 조금 다르긴... 좀 다르긴

○○○ 하나는 작아요.

서 기 2m 10, 1m 80 이런 것 같아요

○○○ 예, 물고기가 이렇게 좀 뒤틀리거나 그러면 좀 역동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좀 뭐 할 텐데.

○○○ 너무 뽀뽀해요, 이거는

○○○ 죽은 생선, 죽은 생선을 박제해 놓은 것 같아서 이게.

○○○ 어쨌든 이게 또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온 작품이라니까 어쨌든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채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채점 중 )

○○○ 그 가산점은 저희가 그냥 알아서?

사회자 예, 10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주실 수가 있습니다.

○○○ 안 줘도 되죠?

사회자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뭐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점 아래쪽에 보면 그 10점에 추가로, 공모의 경우 10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공모 작품은 110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 아니, 근데 원 점수는 70점 넘으면 통과하는 걸로 쓰여있더라고요.

사회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점을 줘도 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한국주택공사에서 1차로 이제 들어온 작품에 대한 주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의 눈으로 이렇게 온 작품을 이제 선정했다는 거고,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 이게 다섯 점을 먼저 뽑아놓고 이제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입주하는 사람이 다섯 점씩 뽑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이지, 그거 심의위원들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회자 우리 작품 심사하는 부분에 이제 입주민들이 나중에 뭐 민원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주민 투표를 해서 선정이, 조금 이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 5. 서구 점단지구 AA13-2BL

### 5) <화음(花音)-꽃의 왈츠>

### 6) <인피니티 트윈타워>

위원장 예,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화음(花音)-꽃의 왈츠>와 6번 <인피니티 트윈타워>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5번과 6번은 서구 검단지구 AA13-2BL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설치될 신규 작품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화음(花音)-꽃의 왈츠>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어, 높은음자리표를 갖고 이용하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잘 해석해갖고 보기가 좋네요. 근데 여기가 좀 통속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크게 화면을 띄워보니까 나름대로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 이 높은음자리하고 좌대하고 좀 주변에 있는 것들 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옆에 꽃을 많이 붙여놨네요, 디테일을 보니까. 꽃을 많이 붙여와 가지고 그 꽃의 형상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 연결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네. 아, 예. 예, 작품 가격이 1억 300인데 뭐 가성비가 있는 작품 같습니다. 뭐 조형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일단 채점을 같이 해야 되니까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6번 <인피니티 트윈타워>입니다. 여기 이 작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 지금 그건 채점 아니죠? 같이 하고 있는

위원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이거는 살짝 이렇게 중학생들, 짓곳은 중, 고등학생들이 가서 이제 손을 꽃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치기가... 어린 애들은 오히려 부

모들이 못하게 할 것 같은데 막 중, 고등학교 애들, 그 와일드한 애들이 가서 막 할 것 같아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밑에 물을 더 넓게 해서 그나마 조금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어, 맞아요. 맞아요.

○○○ 예, 그런 의견을 이렇게 거기에 채점표에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기계적인 작동이 아닌가 보죠?

○○○ 이게 뭐 키네틱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이 작품을 한번 전에 전시하면서 한번 비슷한 걸 지금 밖으로 이게 이제

○○○ 이게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해서 물을 막 떨어지면 막 소리 나오고 이렇게

○○○ 예, 물을 올려서, 올려서 떨어지면...

○○○ 움직이게 하는 거 같죠?

○○○ 예, 예, 맞습니다. 예.

○○○ 예, 떨어지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떤 거는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음악적인 소리도 나고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작업이 그... 예. 작업이 참 재미있는데 저는 살짝 형태가 약간은 너무 불안한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 키네틱이 좀

○○○ 예, 뭐 디테일이 있네요, 밑에.

○○○ 디테일 07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작품 도면에.

○○○ 조금 바닥을 좀 넓히면, 넓혀서 접근성을 조금

○○○ 접근성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그

○○○ 예, 예, 조건을.

○○○ 예, 조건을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게 바닥이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고 이게 꼬았는데요? 이게 아까 거  
보니까. 그 바닥을

○○○ 삼각형이 아니고요. 같은 형태를 약간 트위스트 해가지고

○○○ 그러니까 예, 이게 꼬부려 뜨렸어요.

○○○ 살짝 내려서 같은 두께에

○○○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 예, 저렇게 되어 있어서.

○○○ 굳이 뭐 아래를 넓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형태 하고는 조  
금 다른

○○○ 그 아래를 넓힌다는 건 작품 자체를 넓히는 게 아니라 바닥

○○○ 바닥의 넓이를.

○○○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이제

위원장 네, 5번과 6번을 같이 채점해서 오른쪽 책상 상단에 넣어주시면 되겠  
습니다.

( 채점 중 )

## 6. 운서동 3084

### 7) <패밀리 러브 인 플라이트(Family Love in Flight)>

위원장 다음으로 7번 <패밀리 러브 인 플라이트(Family Love in Flight)>에 대  
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7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트하고 사람을 매치시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형상들이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약간 빨대에다 바람 불어서 좀. 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오히려 조금 명료한 느낌이 안 들어서.
- 좀 이렇게 단순한… 뭐랄까, 그리고 이게 전부 이렇게 그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리본 같으면 그런 얇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했는데 저 사이, 사이에 먼지도 낄 것 같고, 일단 보기에 조금 조잡스러운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적으로 어떤 컬러에 대한 건 우리가 느낄 게 없잖아요. 단 원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라인이 물론 테두리에 있긴 하지만 마치 그 리본 춤을 추는 것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리본 춤 속에 사람들을 한 것이 너무, 그리고 저렇게 했는데 가격은 되게 높네요.
- 맞아요.
- 예, 무슨 덩어리가 들어간 것들이 아닌데 그 저는 사실 조각이 아니라서 잘…
-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편견들 많아요, 사실. 말이 많기는 해요.
- 이상입니다.
- 다른, 다른 쪽 볼 수 있을까요?
- 서 기 다른 면이요?
- 네.
- 아니, 저 다른 면을
- 서 기 위에서 본 거거든요. 이 심의도서에 다양한 각도로 표현을 안 하셔서.
- 어떻게 봐도 알 것 같은데.



○○○ 아, 조명을 저렇게 한 건가요?

서 기 예, 도면 여기 있네요.

○○○ 그래서 저건 그렇게

○○○ 예, 애들이 달려들 것 같은데. 애들이 달려들고 저거...

○○○ 저도 좀 약해 보이고 네, 사실 저는 저 주변이 더 궁금하거든요. 저런 복잡한 조형물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이 과연 저 조형물을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 예. 저런 상태이고, 아마 이제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저 작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기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람이 덩어리의 느낌이 가든지 아니면 라인의 느낌으로만 가든지 뭔가 그 명료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커진다는지, 좀 이렇게 가격 대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작품이 조금 적다.

○○○ 약하다.

위원장 예, 의견 없으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7. 청라동 157-11

### 8) <FOREST>

### 9) <A vase was set on the desk>

위원장 다음 8번은 재심의 작품입니다. 예. 8번과 9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8번 <FOREST>와 9번 <A vase was set on the desk>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8번 작품 <FOREST>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한데 전혀 Forest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작품에서 이렇게... 아니, 제가 자꾸 사실은 저는 입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 아, 맞는 말씀 같아요.

○○○ 예, 너무나 그 좀 열악한 모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자체에 어떤 조형적으로 뭔가 특별히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색이 그렇지도 않고, 형태가 그렇지도, 좀 재미있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 이전에 부결된 작품도 그래요.

○○○ 그리고 제가 도서를 살펴보면서 발견을 한 건데 이걸 확인을 좀 요청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원안 승인되었던 지오메트릭얼 트리라는 작품, 저 아래 그것과, 지금 우리가 심리하고 있는 8번이 작가가 같은 것 같거든요.

사회자 예, 같은 작가입니다.

○○○ 그러면 지금 7억이 넘는, 총 현장에서 받을 한 작가가 설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기획자 입장에서는 뭐, 믿을 만한 작가라서 혹은 저 작품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했을 수는 있겠으나 한 현장에 지금 네 장소에 작품이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 두 장소를 한 작가가 하는 거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을런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예. 또 이 작품에 대해서 그  
○○○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작품이 좀 가난하다, 작품이 가격에 비해

서.

○○○

예, 빈약해요.

○○○

예,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고.

○○○

제가 이거는 단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장점은 그럭저럭 주변하고 어울리는 것 같은...

○○○

주변 환경과는 약간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좋은 점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점이 많은데, 예.

○○○

저는 오히려 주변 환경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위치가 저런 배경 앞에 있어야 되나?

○○○

출입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치가, 그 위치가 저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아까 2번 작가, 3,000만 원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액수의 그 빈약함이 더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

네, 저도 작품이 좀 많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 주변이 사실 벽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건물 이름도 있는데 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굉장히 상반 돼 보이는 작품입니다.

○○○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

네, 어수선했던 느낌.

○○○

라인으로 한 건 시도는 좋은데 그 라인을 선하부에 이게 적절하게, 좀 약간 심플하다든가 아니면 두툼한 뭔가의, 변화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네, 좋은 의견이 감사합니다.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A vase was set on the desk>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8,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거 8,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그림 사이즈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평으로 따지더라도 3 3에 이렇게 해서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100호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양화 캠퍼스로 따지면 이게 한 150호, 120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호당 가격을 따졌을 때 작품 수준이 8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작품 수준이 그렇게 좋은 메리트라는데 지명도, 지명도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품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예, 가격에 대비해서. 작품 수준에 비해서 너무 지금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너무 세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저 작품을 보면서 ○○○ 작품의 색깔을 느꼈어요. 근데 좀 뭔가 멋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작품이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조화롭지 않더라고요. 네, 주변이 상당히 중요한 부위 같은데 주변이 좀 아쉬웠어요.

○○○ 근데 특별히 그 아웃 라인을 블랙으로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즈가 좀 작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저렇게 커졌을 때 아, 참 아름답지 않더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 상업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죠.

○○○ 사실 이게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차라리 추상으로 확 가버리면 우리가 말을 하기가 좀 힘든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그 젊은 MZ 작가들 형상을 그려내면서 전혀 우리 세대와 공감이 안 맞는 작품들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싸게 아트페어에서, 막 이런 데서 소비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가의 작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예, 맞아요.

위원장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자, 집계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결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안건 번호 1, <휴(休)>. 2, <Cattle>, 3, <Geometric Memorial>, 4, <물결속으로>, 5, <화음(花音)-꽃의 왈츠>, 6, <인피니티 트윈타워>, 7, <패밀리 러브 인 플라이트(Family Love in Flight)>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은 안건 번호 8번, 9번 재심의 작품이 역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1번 작품은 조건을 몇몇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1번 작품은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이 좌대의 크기에 대해서 좀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나?

○○○ 저 크기가 아니고요. 높이였습니다, 높이요.

위원장 높이?

○○○ 한 30cm 정도 올리는.

위원장 ○○○ 위원님은 450 정도로 높여서

○○○ 조건에 좀

○○○ 올리든지, 내리든지.

○○○ 판재 붙일 때 좀 견고하게 잘 붙여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재 붙일 때. 그게 에폭시로 하지 말고, 특별히 에폭시로 하되 충분히 좀 고려해서 작가가 좀 관여해갖고 저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 조건으로. 아니, 조건은 아니죠, 예.

위원장 저기 ○○○ 위원, 거기에 조건으로 쓰셨습니까?

○○○ 아니오, 안 썼어요. 지금 생각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그럼 그거를 좀 다시 좀 추가하는 걸로

○○○ 네, 접합을 단단하게.

서 기 작가가 이해할 수 있게 문장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좀 구체적으로 무슨 뭐 있습니까? 어떤 에폭시를 뭐, 강도 뭐를 써서 뭐 (웃음)

○○○ 아니, 아니, 에폭시로, 에폭시로 하되

위원장 앵커를 어떻게 박고.

○○○ 앵커는 저, 다 많이 사용해서요.

○○○ 근데 죄송한데 30cm라는, 어떤 cm를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가 그 상황을 보고 어쨌든 약간 안전하게

○○○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냥 판재, 판재 접합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 그 최대 높이를 좀 높게… 일단 안전하게

○○○ 안전한 높이, 안전한 높이.

○○○ 좌대 높이, 안전한 높이로.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서 기 좌대 높이를 안전한 높이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 예, 판재 접합도 그 왜냐하면

○○○ 아니, 저 사이즈보다 30cm로 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해 놓으면 뭐 좀, 위랑 어떻게 되고 뭐 복  
잡해지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데 그거 아니면 매립으로 하자는 거였죠.

○○○ 아

○○○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중에 작가가 어느 게 유리한 건지 선택하게끔 낫  
지 않을까요?

○○○ 예, 예.

○○○ 또 그러니까 발이 안 걸리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 쓰셨으니까 또 하나는 그 좌대를 매립하는  
방식을 쓰든지 네, 그건 고려해 보십사

○○○ 두 가지로 하면 되겠네.

○○○ OR, OR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

○○○ 또는, 또는.

서 기 또는?

○○○ 좌대 매립. 고려 바람.

서 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 예.

○○○ 안전성을 위하여 좌대 높게.

서 기 앞에다 쓰면 되겠죠?

○○○ 예, 앞에다가.

서 기 안전성을 위하여 좌대 높게 조치 또는

○○○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 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예.

서 기 앵커 추가 등 보강. 이렇게 할까요?

○○○ 보장까지는

○○○ 예, 저게 조건입니까? 권고입니까?

○○○ 권고죠, 권고.

○○○ 예, 예.

○○○ 그걸 뭐 조건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저렇게 문안을 제시해서  
가결시키면 되겠습니까?

○○○ 네, 네.

위원장 예, 이견 없죠?

○○○ 네.

위원장 네, 그럼 2번 <Cattle>에 대해서 그 ○○○ 위원님이 좌대 높이를  
400mm 이상으로 확인하고 조형물 전체 높이가 성인 남자의 키보다 높  
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까 관계자가 들어와서 좌대 높  
이가 400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 거기에 그냥 언급을 하고... 400쯤으로 보인다고 본인도 말을 한 거라  
고 옆에, 도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예, 예.

○○○ 그거를 확인하고 설치 요망, 이런 식으로.

서 기 그럼 이거 조건부 인가요?

○○○ 이게 권고해서

○○○ 권고사항으로.

○○○ 권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작품 가액도, 예.

○○○ 좌대 높이 확인 후

○○○ 좌대 높이 40cm 확인.

○○○ 예, 40cm 확인 후 설치하되



서 기 40cm 확인, 설치? 확인 요함?

○○○ 확인을 요함.

위원장 자, 3번 조각. <Geometric Memorial> ○○○ 위원님이 상하 사이즈를 7 대 3 정도 변화를 주었으면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뭐 권고인 거죠?

○○○ 네.

위원장 네, 그다음에 ○○○ 위원님은 색상의 경우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가 되도록 채도 및 색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님이 권고사항으로 좌대 형태와 위쪽의 조형물과의 비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조건으로서 색상의 채도를 낮춰주었으면 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 위원이 조건이라, 채도를 낮춰서 좀

○○○ 예, 예.

○○○ 예, 무채색을 좀 섞어서 써라라는 말씀이시죠?

○○○ 예, 채도를 좀 낮춰라.

○○○ 예, 예, 예.

○○○ 예, 그거 비율하고. 그 좌대, 좌대.

○○○ 좌대, 좌대 비율하고.

○○○ 예, 그럼 이걸 조건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좌대 비율을 6 대 4나, 7 대 3.

○○○ 6 대 4나 아니면 7 : 3

○○○ 그냥 비율 조정이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 비율 조정하면 알아서 하시겠죠.

위원장 예.

○○○ 그렇죠.

○○○ 그 좌대 작품 색채 조정.

서 기 비율 및 색채 조정.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 그렇죠.

○○○ 색채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채도라고 해야 돼요.

○○○ 채도라고 해야 돼, 채도.

○○○ 낮게.

○○○ 채도 낮게 조정.

○○○ 저채도.

서 기 맞나요?

○○○ 색의, 색의 채도 조정.

○○○ 아무래도 좀...

○○○ 전체적으로, 예. 색의 채도. 전체적으로

○○○ 맞아요.

○○○ 예, 그래요.

○○○ 3번에

○○○ 그냥 채도 조정만 쓰세요, 그냥.

○○○ 채도 조절...

서 기 통일된 의견 주셔야 돼요.

○○○ 저기에 저채도라고 하면 진짜 완전히

○○○ 그럼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 맞아요.

○○○ 메모리얼 분위기로 정할 거면, 안 되거든요.

○○○ 채도 조정, 채도 조정.

○○○ 예.

○○○ 채도를 좀 낮게 조정.

○○○ 색, 채도 조정

서 기 색의 채도,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요?

○○○ 채도, 낮추는 거 아니야?

○○○ 예, 채도는 좀 더...

○○○ 그거 봐두면 자기가 알아서 ‘아, 색이 너무 튀나 보다.’ 이렇게 알겠  
죠.

○○○ 낮은 채도, 아니...

○○○ 저채도라고 하면 되죠.

○○○ 그냥 중간 채도로 하시라고.

○○○ 채도가 너무 강함.

○○○ 예, 중채도 정도로 하라고 하면.

○○○ 예, 채도가 강함.

서 기 강함이라고 쓸까요?

○○○ 강함, 채도가 너무 강함.

○○○ 채도가 강함, 그래야 돼요.

서 기 채도가 강함, 이렇게 할까요?

○○○ 예, 그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 채도 한 8정도로 하라고 그러세요.

○○○ 됐어요, 됐어요.

서 기 동의 하신 건가요?

○○○ 예, 예.

위원장 그럼 이제 다시 <물결속으로> ○○○ 위원님이 역동성이 추가되면 보  
다 효과적인 듯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 위원님이 물고기에 약간  
의 동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울  
기를 조정하고, 꼬리의 움직임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 근데 그거 또 잘못 조정했다가 희한해질 수도 있으니까.

○○○ 그런데 이제 조각가, 조형물을 하는 조각가가 또 설마 이상하게 막 비  
틀진 않겠죠.

○○○ 너무 뻗뻗해요.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조금 유연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물고기에.

○○○ 저게 동적으로 저게 막 바뀌었을 경우 진짜, 진짜 이상하게 될 수도  
소지가 있긴 있는데

○○○ 아니, 생동감이...

○○○ 그렇다고 저대로 놔두면 저게 완전히 죽어서 이렇게 매달은 거죠.

○○○ 그러니까 물고기의 형태를 좀 더 유연하게

○○○ 생동감 있게,

○○○ 아, 생동감 뭐...

서 기 이게 권고인가요?

○○○ 조건으로 해줘야죠, 안 돼요?

○○○ 권고.

○○○ 근데 이게 조건으로 가기에는 작품이 너무

○○○ 이제 저 정도, 이 정도는 권고를 해도 될 수도... 예.

○○○ 예, 그래요. 맞아요. 권고를 하는

위원장 예.

○○○ 권고로 해주세요.

서 기 권고, 동의하시는 거죠?

○○○ 물고기의 생동감.

○○○ 아, 권고는 말 안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자 예.

○○○ 알아서.

○○○ 들을 수도 있고요, 안 들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 아, 그러면 조건으로, 조건으로

○○○ 조건부로

위원장 예.

○○○ 조건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서 기 이렇게 하면 됩니까?

○○○ 근데 만약에...

서 기 물고기의 생동감을 위해 유연하게 표현. 너무 추상적인 가요?

○○○ 저 작품이 공모에서 선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형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럼 이 작가가 저쪽에다 또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 아니, 그러니까 권고...

○○○ 권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조건부로

○○○ 저 4번을 조건부로 올리라고요.

서 기 조건부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네, 네, 동의합니다.

○○○ 권고로 해요? 저거 조건부로 해요?

○○○ 아니, 조건부로.

위원장 예, 그러면 4번은 조건으로 올리는 결로 하겠습니다.

서 기 네. 조건부는 다시 이제 자료를 받아서 서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지금 괄호 열고 도면 다시 제출하라는 얘기 맞을까요?

○○○ 예, 예.

서 기 맞나요, 위원님들?

○○○ 어차피, 어차피 조건부로  
서 기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지 말까요?  
○○○ 3D를 다시 해야 돼요.  
사회자 저희가 이제 그 조건부는 다시 이제 서면심의를 이제 요청드립니다.  
○○○ 아, 서면심의를 한다고? 아, 아, 아.  
사회자 예, 그렇습니다.  
서 기 이해할 수 있는 문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 예, 예.  
위원장 6번, <인피니티 트윈타워> 이것은 ○○○ 위원님이 전체적인 조형미가 좋으나, 물이 있는 바닥면을 넓혀서 안정성 확보시 보다 더 효과적일 듯함, 좋은 의견 주셨고요. 또 ○○○ 위원님이 바닥의 물 부분을 더 넓게 해서 경계를 분명히 정하여 낮추면 안정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음. 예, 비슷한 의견을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조건부로 바닥을 넓혀라.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것도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예.  
위원장 그래서 바닥면을 의견… 저기 ○○○ 위원님이 그 문구 좀 그렇게…  
○○○ 접근성 차단보다는 어렵게.  
○○○ 접근성  
○○○ 낮춤.  
○○○ 낮춤, 이렇게.  
○○○ 확실히 이렇게 넓어지면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 아, 그래요?  
○○○ 물은…  
○○○ 최대한 못 들어갈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 기 그러면 이거 크기를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넓으면 들어가서 놀기가 사실 아이들은 훨씬 더... 예, 유혹적이죠.

○○○ 아, 물에 침병침병.

○○○ 그래서 못 들어가는 상황을 어떻게든 좀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근데 물에 들어가는 저기가 많을까요?

○○○ 물이 이렇게 있고, 조형물이 있으면 동전을 던진다고, 사람들이.

○○○ 아이들은 다 들어가서 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 사실 어린 애들은 부모님이 늘 항상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는 것만 있어도 안 가시 게 되지 않을까요?

○○○ 네.

○○○ 일단은 경고판을 그림 붙이든지 그냥

○○○ 접근성이라는 말 쓰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성을 확보, 이렇게 해야죠, 그냥.

서 기 그게 나아요?

○○○ 예, 예. 그럼 뭔가 다른 거를 조치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 네.

○○○ 현장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 예.

○○○ 그거 저 물을 갖다가 지하로 그냥 스며들게 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안 되나요? 그거 굳이 그거 물바다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물 떨어뜨리고

○○○ 떨어뜨려서 지역에서

○○○ 물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막 그런 밑에, 덮고 그러면 밑에 아이들이 가서 또 놀 수도 있고 그렇죠. 물 맞으면서, 분수대에서 막 놀듯이.

○○○ 안에서 할 거 아니면 또 바깥에다가 뭘, 위쪽으로 아니면 보기 좋게 그 띠를 둘러놓는다든가.

○○○ 사실은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물 가지고 노니까 이것 또 수질관리 같은 게

○○○ 음, 그렇죠.

위원장 문구 정리됐습니까?

○○○ 넓히면 아이들이 더 들어가기 좋다면서요. 근데 넓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좀 약간 모순

○○○ 예,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 그러면 넓이를 넓게 하는 걸 빼고 바닥 물 부분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성 확보. 그걸 그냥 그...

서 기 부분을 조정하여 할까요? 조정?

○○○ 예, 바닥 물 부분...

○○○ 넓게 조정하여.

○○○ 크기 조정하여.

○○○ 네.

서 기 이렇게 하면 됩니까?

○○○ 이거, 저기에 들어갈까요?

○○○장 깊이...

○○○ 크기 조정하여

○○○ 아이들의 안전성 확보. 예, 그렇게

○○○ 그냥 바닥 부분을 조정하여 아이들의 안정성 확보가 낫지.

○○○ 크거나 이런 것들은 더 줄일 수도 있고

○○○ 그러니까 그 크기를 조정이니깐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크기 및 디자인? 크기 혹은 디자인?

○○○ 그냥 크기 및 디자인이 맞는...

서 기 크기 또는 디자인.

○○○ 예.

○○○ 그럼 고민해서 더 어울리는 걸로 하시지 않을까요?

○○○ 예, 이렇게 정리를, 권고를, 조건으로 하면, 예.

○○○ 고민하겠죠.

○○○ 그러면 거기 회전되는 걸 좀 높인, 높인 상태에서 하든가.

○○○ 맞아요.

○○○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본인이 하시겠죠.

서 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 네.

위원장 그럼 이게 권고입니까? 조건입니까?

○○○ 조건이죠.

○○○ 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네, 그럼 조건으로. 이 다음에, 그다음에 다 된 거죠.

위원장 7번 작품. 어린이 및 시민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조 강도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틈이 많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뭐 손이 낄다거나 머리가 끼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틈 같은 걸, 저 작가한테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게 될 수도 있고.

○○○ 미끄럼도 타고 그럴 것 같은데.

○○○ 음

○○○ 경기도 심의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거 할 때는 구조 안전, 그 계산 같은 것도 첨부를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게

○○○ 대부분 그거는 이제 하중이나 안전에 의한 건데

○○○ 그렇죠.

○○○ 애는 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 하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 근데 애들이 진짜 올라가기에 너무 딱 좋게 생겨가지고.

○○○ 그럼 이진 뭐 특별한 어떤 조건도 안 붙이시는 건가요? 해서 뭐 강도를, 구조에 대한 강도를 굉장히 높이라는 그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 아니, 이거 안전성 저기 그, 그거 검사해가지고

○○○ 안전... 뭐, 구조 진단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 그게 맞나요?

○○○ 구조개선은 하중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전혀 저거 지금 하중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반도 뭐, 지반이 아무리

○○○ 저 밑에 지하 주차장에 넘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

○○○ 저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접근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다치거나 이런 위험성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데, 저게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그렇죠. 충분히 애들이 너무 탈 것 같은데.

○○○ 두께도 너무 얇고 하니까.

○○○ 그러면 저기, 저게 스테인리스 스틸에 채색을 한 거죠?

○○○ 네, 네.

○○○ 뭐 스테인리스 강도를 mm수를 좀 더 우리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걸 몰라서.

○○○ 스테인리스 3T 정도 쓰거든요.  
 ○○○ 네, 그러니까.  
 ○○○ 근데 여기 5T로 쓰겠다고 쓰여 있어요.  
 ○○○ 아, 5T요?  
 ○○○ 5T면 괜찮아요.  
 ○○○ 5T 이상의 어떤 뭐, 어?  
 ○○○ 5T는...  
 ○○○ 아니, 이렇게 나올까요?  
 ○○○ 5T를 저렇게 휘어서 할 수 있는  
 ○○○ 휘어지지가 힘들 텐데.  
 ○○○ 아, 안에 것만 5T이고, 옆은 2T네요.  
 ○○○ 그렇죠?  
 ○○○ 그렇죠? 2T? 아, 2T는 좀  
 ○○○ 아니, 측면, 측면.  
 ○○○ 저게 지금 몇 T로 했습니까?  
 ○○○ 아니, 측면은 2T니까 상관없죠.  
 ○○○ 안전성 고려하라고.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테인리스 두께...  
 ○○○ 뭐 검토? 아니면 조정?  
 ○○○ 3T 이상으로... 뭐, 이게 지금 몇 T로 이 사람이 제시했습니까?  
 ○○○ 5T.  
 ○○○ 전체가 5T는 아니고요.  
 ○○○ 측면, 측면에  
 ○○○ 단면은 5T라고 쓰여 있어요.  
 ○○○ 얼마? 몇 T요?

○○○ 2T, 2T.

○○○ 2T.

○○○ 2T, 얇다.

○○○ 근데 이게 여기에서 더 두꺼워지면 모양 잡기가 어렵잖아요.

○○○ 아

○○○ 이미 그 사람, 본인도 이제 그걸 고려해서 2T로 하셨을 것 같은데 휘청휘청 하여서 좀...

○○○ 그럼 가운데다 살을 좀 대달라고 이렇게 쪽

○○○ 그럼 이제 조형적으로 이제 이상해지는 상황이

○○○ 가운데에다가 살을 대면 너무 작품이 훼손이 되니까

○○○ 아니... 살은 속에다가 하는 거니까.

○○○ 아

○○○ 속으로, 속으로.

○○○ 아

○○○ 그러면 아예 이게

○○○ 프레임을

○○○ 애들이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좌대가 있으면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 좌대는 좀 작품의 모양이

○○○ 아,

○○○ 이거는 이 작품, 작품 스타일 자체가 애들이 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거 또 멀리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 이거는 땅바닥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쉬울 수 있지, 땅이 아니라 뭔가 이게 작품이다하면

○○○ 그냥 본인이 알아서 충분한 두께를 확보를 하라고만 해봐도 될 것 같

○○○○ 아요. 3T라기 보다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테인리스 두께  
 조정.  
 ○○○○ 네.  
 ○○○○ 아니면 뭐  
 ○○○○ 스테인리스 두께 조정.  
 ○○○○ 보장? 어? 보장은 아닌가.  
 서 기 보장?  
 ○○○○ 아, 그러면 되겠다.  
 ○○○○ 두께 및 구조 보강이라고 하면 되겠네, 속의 구조.  
 서 기 구조 보강?  
 ○○○○ 두께 및 구조.  
 ○○○○ 예.  
 ○○○○ 예, 구조 보강.  
 서 기 두께 및 구조 보강. 이렇게요?  
 ○○○○ 예, 예.  
 서 기 안전성?  
 ○○○○ 안전성으로  
 ○○○○ 아, 인천에만 없는 거죠.  
 ○○○○ 그러니까...  
 ○○○○ 전국에다가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하고,  
 다른 연고지.  
 ○○○○ 이분이 만약에 설치했던 게 있으면 그걸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잖아  
 요.  
 ○○○○ 그런 거 제출 안 하나요?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  
 ○○○○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전에

사회자 예, 저의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 작가 경력 뒤에 그 사람이 한 작품들을

서 기 거기에 그 심의서류에 작가 경력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네,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 네, 보여주세요.

○○○ 보여주세요. 이게 안 열려서 저는.

서 기 여기 있습니다.

○○○ 전혀 이 작품...

○○○ 유화 작품을 했던

○○○ 작품 스타일도 많은 그런 작품에 대해서

○○○ 분명 다른 작품을...

○○○ 여기 작품이 다

○○○ 따로

○○○ 너무 다르다.

○○○ 다 달라요.

위원장 자, 이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의 심의 안건 중 1번, 3번,  
4번, 6번, 7번은 조건부 가결. 번,, 2번은 권고로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8번, 9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것으로써 2023년 6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녹 취 끝 -